

AP-12

부산 회동 수원지 유역에서 수변곤충군집의 종다양성

김성경, 문태영

고신대학교 생명과학과

회동수원지 및 그 유입지류인 수영강과 철마천 유역의 상류수계는 원효산(895.8m), 백운산(520.2), 망월산(521.7m) 철마산(604.0m), 아홉산(395.9m), 개좌산(449.3m), 공덕산(230.0m) 등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조사지역 내에도 크고 작은 산들의 영향을 받는다.

조사된 곤충의 대부분은 수변 경작지의 식생과 관련된 것들로 볼 수 있는데,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노린재목, 메뚜기목, 매미목, 나비목은 유충기나 성충기에 화본과식물, 농작물, 화훼류 등에 기생하거나 서식하는 종이 많다. 특히 노린재목의 애긴노린재, 시골가시허리노린재, 메추리노린재, 알락수염노린재, 북쪽비단노린재는 벼를 식초로 생활하는 종들이다. 그 외에도 보리장님노린재, 더듬이긴노린재, 우리가시허리노린재,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가시점등글노린재, 등글배노린재, 붉은잡초노린재도 벼를 식초로 하는 종이다. 메뚜기목에서는 섬서구메뚜기가 가장 많은 지점에서 채집되었다. 그 외에 썩새기와 방아깨비, 장삼모메뚜기, 벼메뚜기, 모메뚜기, 긴꼬리썩새기, 각시메뚜기 등이 채집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경작지 주변에서 서식하는 종으로 회동저수지 수변의 특성이 경작지가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런 곤충들이 관찰되는 경우 본질적으로 주변은 습한 토양이 있거나 수경지이므로 수원지에 유입되는 유기물이 증가되는 지역일 수 있다. 한편 잠자리목의 대부분의 종들이 낙동강 지역보다 회동저수지유역에서 높은 종다양성을 나타내는데, 유충시기를 정수나 계류의 비교적 얇은 물에서 지내는 특성 때문이라 생각된다. 회동저수지 유역에서 비교적 널리 조사된 종은 아시아실잠자리이다. 수서곤충의 성충으로는 하루살이목은 6지점에서 2종이, 날도래목은 1지점에서 1종이, 강도래목은 1지점에서 1종이 수변초지에서 채집되었다. 실제 이 종들이 채집된 지점은 비교적 회동 유역에서는 오염이 심하지 않은 지점들로서 이 수서곤충군들이 생물학적 지표의 역할이 분명하게 나타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Key words : 회동, 수영강, 철마천, 수변, 경작지, 식생, 노린재, 메뚜기, 매미, 나비